//1P

안녕하십니까 9조 첫번째 발표를 맡은 진솔미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P

먼저 발표 목차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9조 소개, 깃허브 활용 소개, 신기술 소개, 프로젝트 소개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저희조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약 두 달 간 저희 9조가 깃허브를 어떻게 다른 미션들과 접목해서 활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고 신기술과 프로젝트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원진 팀원이 나와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3p

저희 9조 팀명은 너와! 나의! 연결고리! 입니다. 서로 간의 팀워크가 깃허브로 연결되어있다라는 뜻으로 지었구요 슬로건은 Just do it 입니다.

팀은 팀장 진솔미 알고리즘장 문기용 프로젝트장 이원진 신기술장 강병관 깃허브장 김다현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다 하나씩 장을 맡았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조에 조용한 친구들이 많아서 처음에 다들 아이디어나 의견을 내는데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제로 하나씩 장을 주고 맡은 역할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자 전담 역할이 생긴 후로는 아이디어도 많이 모이고 일도 빨리빨리 진행되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클릭 클릭

귀여운 저희 사진입니다. 아주 팀워크가 좋아보이죠?^^

//4p

또 평소에 알고리즘 스터디를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코드리뷰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도 보고하고 각자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서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5p

다음은 깃허브 활용입니다.

//6p

저희 조는 이렇게 총 6개의 레파지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p

첫번째, YouAndMeLink 레파지토리입니다.

저희가 이 공용계정을 왜 만들었는가, 이 공용계정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할 예정인가 이 공용계정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 인가에 대한 정보를 마크다운 파일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공지사항, 회의록, 중간 발표자료 또한 PDF로 업로드해 두었고 오늘 발표 자료도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8p

네 이런식으로 마크다운 파일을 작성해봤습니다.

조 소개와 조원들의 소개를 간단히 적어두었고 사진을 누르면 개인 깃허브로 링크될 수 있도록 만들어두었습니다.

//9p

또 저희가 수행할 미션1,2,3번에 대해 소개하고 각 미션을 수행중인 레파지토리들에 링크를 걸어두어 저희 공용계정의 목표와 목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10p

두번째, Study 레파지토리입니다.

해당 레파지토리는 미션 뿐 아니라 전공과목도 함께 스터디하고 학습 자료도 공유하기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11p

스터디 레파지토리에는 저희가 초반에 스터디 한 깃허브 사용법 정리 파일과

//12p

노션과 디스코드를 통해 스터디 했던 관련 파일이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저희 조는 디스코드를 활용하여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연락하여 직접적인 대화로 진행을 하였고,

//13p

노션을 활용해 일정관리를 하였습니다.

//14p

또 프로젝트에 대한 코드나 미션에 필요한 자료,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야하는 부분들을 노션을 활용해 협업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13p

또 보시다시피 팀원 모두 구술 테스트 준비를 위해 각자 요약정리와 예상문제를 만들어 공유하였고 이 또한 디스코드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며 열심히 스터디하였습니다.

//14p

세번째, Algorithm-Study 레파지토리입니다.

먼저 저희 조는 알고리즘 스터디 사이트로 백준을 선택했습니다. 돌아가며 문제를 선정하고 지정한 기간 내에 풀이 후 스터디를 통해 서로의 코드를 공유하면서 "아~~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도 있구나, 이런 개발지식, 주의사항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알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알고리즘을 이해 못한 팀원은 없어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간내에 풀지 못했더라도 스터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 해설 및 코드 리뷰를 통한 질의 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15p

스터디 후에는 각자 브랜치에 코드를 올리고 메인 브랜치에는 제가 마크다운 파일로 된 학습일지 양식을 업로드 해두면 깃허브 내에서 조원들이 마크다운 파일을 바로 작성, 수정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 두었습니다.

//16p

저희 학습일지에는 문제마다 난이도, 문제 풀이 후기, 개인브랜치에 업로드한 소스코드 URL, 코드 비교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초반에 다들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를 선정해와서 문제 풀이에 막히거나 흥미를 붙이지 못하는 이슈가 발생하여 교수님의 조언대로 한방울씩 물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쉬운 문제부터 풀어가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17p

또한 이슈 탭을 활용해 재풀이하고 싶은 문제나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미션을 통해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던 게 지문이 긴 문제를 만났을 때의 두려움이 준 것입니다. 다들 초반보다 문제 분해 능력이 성장한 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18p

다음으로 네번째 Test 레파지토리입니다.

이 레파지토리는 깃허브 사용법을 숙지하기 위해 만든 깃허브 실습용 레파지토리입니다. 바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깃허브에서 협업을 하기에는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을거라 생각되어 따로 test 레파지토리를 생성하여 연습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밑에 적힌 맘껏 실패하세요 하는 말처럼 정말 실수를 했지만 Pull, push, pull request, merge를 반복적으로 실습한 결과 팀원 모두 깃허브로 협업하는 방법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19p

저희 조는 각자 브랜치에서 작업한 코드를 풀 리퀘스트로 올려주면 제가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메인 브랜치에 머지한 뒤 변경된 내용에 맞는 라벨을 붙여 수정 내용을 라벨 별로 확인 가능하게 정리해두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p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깃허브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협업을 경험해봤습니다.

//22p

다섯번째 About\_NFT 레파지토리입니다.

저희 레파지토리만 방문해도 NFT에 대한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모아두었습니다.

//23p

굳이 다른 검색이 필요 없도록 잘 정리된 사이트들을 링크 하기도했고

//24p

직접 조사한 내용을 ppt와 pdf, 마크다운 파일로 보기 쉽게 정리해두었습니다.

//25p

여섯번째 Project 레파지토리입니다.

해당 레파지토리에는 영화관 키오스크를 구현한 저희 조의 프로젝트 작업물을 올려두었습니다.

//26p

또한 마크다운 파일로 개발환경, 코드 구성, 이슈, 스크린 샷, 시연 영상 등을 정리해두었기에

//27p

저희가 해당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고 완성했는지 과정과 결과 모두 깃허브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8p

여기까지가 저희 깃허브 소개였습니다. 미션을 받았을 때 깃허브를 확실히 활용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중점이라고 하셨기에 저희 조는 깃허브 활용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원진 팀원이 저희가 조사한 NFT에 대한 내용과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